

# 전북 기초단체 행정 투명성 낮다

### 원문정보공개 비율 진안군·고창군·전주시·임실군·김제시 제외 전국 평균 하회

전북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7월 말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원문정보공개 현황에 따르면 평균 공개율은 중앙행정기관 45.6%, 광역시·도 75.2%, 기초자치단체 67.7%다. 전북도는 83.3%로 전국 평균보다

8.1%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정보공개 비율은 높지 않았다.

도내 14개 기초단체 중 원문정보공개 비율 1위는 진안군이 74.3%로 그나마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고창군(72.8%), 전주시(71.5%), 임실군(70.8%), 김제시(68.9%) 등 5개 시군군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전북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원문정보공개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정읍시

로 46.5%에 불과했다.

진안군과 27.8%포인트 차이다.

이어 무주군(51.0%), 군산시(54.8%), 남원시(58.2%), 장수군(58.4%), 부안군(59.2%)의 순으로 도내 대다수 기초단체가 전국 평균을 하회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생산·접수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원문으로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알권리 증진과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했다.

다시 말해 정보공개 비율이 높다는 것은 투명행정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 비춰 도내 대다수 기초단체는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소 의원은 "그동안 공무원 조직의 폐쇄성과 불투명성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아왔다"며 "정보공개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알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민형 기자

## 김재수 장관, 자진사퇴 거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6일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 "국무위원으로 농업 현안에 대해 성실히 해결하도록 하겠다"며 야당의 장관직 자진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속개된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도덕적 권위가 훼손된 장관이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세중 정무청사에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해임안 가결 이후 김 장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이준원 차관에게만 질문을 하면서 오전 내내 자리를 지켜야 했다.

그러나 오후에 속개된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의원이 김 장관을 상대로 첫 질문을 시작했고, 김 장관은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시절 자신이 다니던 한 대형 교회에 회삿돈으로 교회 헌금을 줬다는 논란에 대해 "AT 공사가 식품, 반찬, 쌀 등을 180개 시설에 다양하게 기부했는데 그 가운데 종교단체 기독교 단체가 있었다"며 "법인 차원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한정 의원은 그러나 "다른 교회는 신도수 15명 밖에 안되는 소외계층인데 장관이 다니던 교회는 대형교회 아니냐"며 "사장 취임 이전에 기부한 적이 없는데 사장 취임 후 끼워넣기한 것 아니냐. 왜 굳이 국민의 재산인 공기업의 돈으로 그렇게 했느냐"고 다그쳤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자탄 받을 일을 한 적 없다"고 답했다. /뉴시스



만민외사 순의 419주년 제향 26일 남원 만민외사 총림사에서 열린 만민외사 순의 제 419주년 제향 및 만민외사 순의 제향 도지사 및 나선화 문화재청장, 이훈주 남원시장, 강동원 전 국회의원 및 후손 등 참석자들이 헌화와 분향을 하고 있다.

## 도 재난구조용 국가지점번호 설치율 0.9%

### 전남(0.7%)과 함께 전국 꼴찌 수준... 윤영일 의원 "자연재해 대비 설치를 높여야"

전북의 재난구조용 국가지점번호 설치율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26일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해남·완도·진도)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지점번호 검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의 국가지점번호 설치율은 0.9%에 불과했다.

이는 전남 0.7%와 함께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 때문에 산악지형이 주를 이루 많은 등산객들이 찾는 전북의 경우 가을철 산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9~10월 안전사고 발생 시 구조에 어려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가지점번호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은 제주도로 설치예상량 대비 실제 설치율 13.2%였다. 그 다음으로 광주 11.4%, 서울 10.3% 순이다.

'국가지점번호'는 산·돌·바다 등 건물이 없는 지역, 즉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지역의 위치를 쉽게 표시할 수 있는 전 국토의 통일된 위치 안내 표시방법이다.

긴급 상황 발생시 소방, 경찰, 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간 정확한 위치 및

위치정보 공유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설치된다.

배달, 사건사고 등 특정지점 위치기록, 농수산물 산지표시 및 추적관리 등 대국민 위치 안내서비스 제공에도 활용될 수 있다.

윤 의원은 "조난자 구조를 위한 국가지점번호의 과도한 시도간 격차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정이 열악한 시도가 면적은 넓은 반면 국가지점번호 설치율은 낮은 만큼 국가재정투입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민형 기자

## 도, 친환경잡곡 생산·유통 지원

### 내달 2개소 선정 내년부터 2년간 개소당 10억 지원

전북도가 친환경잡곡 재배·생산 농가의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친환경 잡곡 수요 충족을 위해 잡곡 공급기반을 확대하는 친환경잡곡 생산·유통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 대상은 도내 농업관련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중 친환경잡곡 계약재배 면적이 3ha 이상 규모화된 단지의 생산자 조직이다.

내년에는 2개소를 선정하며, 대상품목은 친환경 흑미, 콩, 찹쌀, 수수, 기장, 귀리 등으로 2017~2018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개소당 10억 원이 지원된다.

선정된 생산자 단체는 보조금을 친환경잡곡 생산·가공·유통을 위한 수확기, 탈곡기, 선별기, 가공기, 포장기 등 단지 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농가조직화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 선정은 외부 심사위원이 서면과 현장평가를 통해 내달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친환경잡곡 생산의 기반을 다져 친환경잡곡에 대한 수요 공급을 원활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조직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김승수 전주시장,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방문

### GS칼텍스·3D 프린터 견학도

김승수 전주시장이 대한민국 탄소산업을 선도하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전주시 탄소기업을 방문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시장은 26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하 기술원) 탄소기술교육센터에서 강선재 원장을 비롯한 기술원 임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원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국내 최고수준의 탄소 기술력과 인프라를 구축해온 기술원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김 시장은 또, 기술원과 피치계 탄소섬유와 활성탄소제품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GS칼텍스를 방문해 전주시와 지속적 협력관계를 다져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국내 최대 수준의 탄소소재 활용 3D 프린터를 견

학하고, 탄소소재와 신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탄소시장 확대를 주문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탄소산업은 최근 탄소법 통과 등 국가전략산업으로 인식이 격상되고 있지만, 경북 등 타 지역에서 전주시 탄소산업을 맹추격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부단한 노력으로 일상생활에 접목될 수 있는 탄소제품 상용화와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중심지인 전주의 이미지를 확고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GS칼텍스는 현재 아크릴 섬유를 원료로 하는 팬계(PAN) 섬유와 달리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정제과정의 찌꺼기를 활용함으로써 가격이 저렴한 피치계 탄소섬유를 개발하고 있으며, 전주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팬계와 피치계 생산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 전주시, 지역 ICT기업 기 살리기 간담회 개최

전주시가 소프트웨어기술 및 문화콘텐츠 기업 등 지역 ICT(정보통신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ICT기업 기 살리기(氣)에 나섰다.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6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세미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서문산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지역 ICT기업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ICT기업 기 살리기 기업 간담회 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ICT기업과

3D프린팅 및 드론기업, 1인 창조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대표들로부터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애로 해결방안 및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또한 최근 국가전략 동향에 대응하는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방향을 소개하고, 기업대표들과의 토론을 통해 기업 맞춤형 국책사업 발굴 및 기업들의 다양한 사업 제안에 대해 귀를 기울였다. /김영재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